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가톨릭 군위모임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르 1,1-8 참조)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 모실 준비를 하는 이 대림시기에 교회는 인권주일을 지냅니다. 그것은 주님의 강생과 인권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것이 인권인데, 하느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도 보살피 드려야 할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 마음가짐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1독서 이사 40,1-5,9-11 **제2독서** 2베드 3,8-14 **복음** 마르 1,1-8

입당송 보라, 시온 백성이야.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박덕수 스테파노 신부 | 장량본당 주임

회개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하는 시간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서로 하나처럼 공존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82년부터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선포하였고 올해는 33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길목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쓰라.”(바룩 5,2) 이 말씀은 하느님의 영광과 정의가 한 짝으로 붙어 다닌다는 것이며 하느님 영광 없이 정의가 완성되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짐 없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의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가 이 세상에 하느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개인 구원의 차원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가져다주시는 분이므로 내면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선포 하셨습니다. 회개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하느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던 이기적인 발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삼아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아야 하는 일대 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

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점이며 행동 목표로 삼게 되고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이 단절로 말미암아 타인 혹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지배, 억압, 착취하는 왜곡된 형태가 생겨납니다. 세례자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이 폐부를 찌르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느님 뜻에 맞는 생활로 바꾸어 살아야 합니다. 삶의 실패 여러 가지 상처 거듭된 실망으로 실의에 빠져 헤매는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의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고쳐 잡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당장 제 눈앞에 있는 길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목마름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러한 목마름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마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제가 당신께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죽음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의탁하겠습니다. 당신이 늘 저와 함께하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홀로 위험에 직면하도록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33회 인권주일 · 제4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문(요약)

인권수호는 교회와 신앙의 의무입니다

인권의 원천은 ‘창조’와 ‘강생’의 신비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죄로 얼룩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강생하신 사랑이 인권을 말하는 출발점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잉태된 후부터 모체 안에서 발육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 일치된 가정에서 그리고 인격의 발전에 적합한 장소에서 살 권리, 진리 추구하고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지성과 자유를 발전시킬 권리, 그 외에 지상의 물질 재화를 올바르게 취득하여 자신과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할 권리”(『백주년』 47항)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평범한 권리로 보이는 위의 구절 앞에 비취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 평균 960명의 생명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낙태로 죽어갑니다.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 고통을 받으며 죽어간 칠곡과 울산의 어린이를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 각종 언어, 감정, 물리적, 경제적 폭력 등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혹은 남편의 권위로 자녀들과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지 않았는지, 직장 내에서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동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임금, 처우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지, 소비자의 권위로 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격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수도자’라는 이름으로, ‘영향력 있는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누군

가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나아가 그 어떤 대상을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를 사랑했는지(요한 13,34 참고), 나의 권리에 침해를 받았을 때 남의 권리를 지켜주려 노력했는지(마태 7,12 참고), 나의 힘과 기득권으로 남에게 인격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을 성공한 자의 당연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향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회심으로 초대합니다. 창조하시고 강생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의 죄를 반성하며 십자가의 용기를 청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한국 방문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화해시키는 은총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강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과 증거의 용기 안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창조와 강생의 신비 앞에 우리 죄를 돌아보고 깨어 있는 준비를 합시다.

2014년 12월 7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

이달의 성인

이웃사랑과 자비의 성인

성 니콜라오 (주교, 미라, 270~341년, 축일: 12월 6일)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니콜라오 성인께서는 4세기경 소아시아의 미라(지금의 터키)의 주교님이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부유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라셨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

시고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과 자선활동을 위해 사용하실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푸셨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로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해 팔려나갈 위기에 처한 가난한 집안의 세 자매를 도와준 일입니다. 곤경에 처한 세 자매의 소식을 접한 니콜라오 성인께서는 몰래 그 집을 찾아가 돈이 든 자루를 놓아두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매들은 성인의 남모르게 행한 자선에 힘입어 무사히 혼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께서는 이후 박해기간에 체포되어 투옥되는 등 고초도 많이 겪으셨지만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셨습니다. 이후 박해가 끝나자 신자들의 쇄신과 이교도들의 개종을 위해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성인께서 사목하시던 교구에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빈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셨으며 동시에 수많은 기

적들을 통해 교구민들을 구제하셨습니다. 한번은 식량을 가득 실은 수척의 배가 폭풍에 밀려 해안에 표착했는데 그때 미라 시민은 기아에 허덕이는 때였고 성인께서는 각 배의 선장에게 식량을 기증해 줄 것을 간청하셨습니다. 주교님의 간청을 들은 선장들은 식량을 분배해 주었는데 출항 후 배에 있는 식량을 점검해 보니 식량이 전혀 줄지 않았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받게 된 억울한 청년들을 구해주신 적도 있고, 모함으로 처형될 위기에 처한 관리들을 구출하기도 하셨습니다. 위험에 처한 선원들을 기적적으로 구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니콜라오 성인께서는 선원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으며 죄수와 어린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성인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란 이름으로 선물을 주는 관습은 니콜라오 성인의 자선과 사랑을 기리는 뜻이 담긴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니콜라오 성인의 별칭 ‘산타클로스’(Santa Claus)는 ‘성 니콜라오’의 네덜란드어 ‘신터 클레스’(Sinter Claes)가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입고 있는 옷의 붉은 색은 주교의 복장에서 온 것입니다. **▶▶▶**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작은 사랑의 혁명

세계의 산업과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한 지난 한 세기 동안, 자신의 이익이나 평안보다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인권 신장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베네딕도회 재속회원이었던 하느님의 종 도로시 데이(1897~1980)를 들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여권신장주의자이자 인권 운동가로서 젊은 시절의 도로시 데이는 빈부 격차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했지만, 확고한 정신적인 지주를 갖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기존 질서를 바꿀 수 있는데 폭력을 사용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길을 보여 준 것은 아버지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레오 13세 교황님 무렵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한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였습니다. 딸과 함께 세례를 받은

도로시는 오늘날 가톨릭 노동자 운동으로 알려진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선구자가 되었고, 복음 정신에 따



도로시 데이와 마더 테레사(1971)

른 가톨릭 신자의 사회 참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니페스토는 주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과 본당에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와 친절로 무장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직접 돕는 작은 사랑의 혁명, 그것이 도로시가 발견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2000년 대회년에 도로시 데이의 시복심사를 개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금주의 성인

12월 7일	성 세르보(순교자, 484년), 성 암브로시오(주교, 교부, 교회학자, 밀라노, 339-397년) 성 에우티키아노(교황, 순교자, 283년)
12월 8일	성 로마리코(수도원장, 653년), 성 에우카리오(베드로의 제자, 주교, 트리어, 1세기경)
12월 9일	성녀 고르고니아(증거자, 372년경), 성 베드로 푸리에(신부, 설립자, 1565-1640년)
12월 10일	성 그레고리오 3세(교황, 741년), 성 맨나(순교자, 312년) 성 벨키아테(교황, 증거자, 314년), 성녀 에울랄리아(동정 순교자, 메리다, 304년) 성 제멜로(순교자, 362년)
12월 11일	성 다마스 1세(교황, 305-384년), 성 바르사바(수도원장, 순교자, 342년) 성 사비노(주교, 피아첸차, 420년), 성 푸시아노(순교자) 성 랑코 리피(수사, 통회자, 시에나, 211-1291년)
12월 12일	성 막센시오(순교자, 287년), 성 비첼린(주교, 올텐부르크, 1086-1154년) 성 핀니안(주교, 수도원장, 클로나드, 470-549년)
12월 13일	성녀 루치아(동정 순교자, 314년), 성 아우트베르토주교(캄브레, 669년) 성 에드부르가(수녀원장, 7세기), 성녀 오틀리아(알자스, 660-720년) 복자 요한 마리노니(수도원장, 신부, 1440년), 성 유도코(신부, 은수자, 668년경)



■ 봉헌 생활의 해 대구관구 개막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2월 1일(월) 오후 2시 30분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당에서 봉헌 생활의 해 대구관구 개막미사를 봉헌하셨다.

■ 왕해연 교수 특강 ‘오늘날 중국에서 생소하지 않은 인물, 페이야르’



삐에르 페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에 대한 특강이 사제, 수도자, 신학생, 평신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북경문화대학 왕해연 교수의 강의로 11월 29일(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남산동 대신학원 강의동 지하 1층 종합강의실에서 열렸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빛)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YHY청소년센터

다양한 강좌 및 동아리 운영 | 초·중등 무료 공부방
어머니 기도회 모임(매주 월요일)
장소: 대명로 182 대경빌딩 지하1층
문의: 청소년센터, 657-9220

계속 깨어서 주님오심을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8일(월) 11:00 계산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8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8일(월) 11:00 월성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8일(월) 11:30 범어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8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13일(토) 10: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8일(월) 11:00 신평성당	-	-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2.13(토) 14:00
 장소: 예수회 관구본부(서강대학교 옆)
 강사: 정제천 예수회 관구장 신부
 문의: (010)9981-1208
<http://cafe.daum.net/vocsj>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땅끝모임)

일시: 12.14(일) 14:00, 부산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가정을 위한 대림 피정

일시: 12.13(토) 13:00~18: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관 나동 대강의실
 대상: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
 마감: 12.10(수) 17:00까지(선착순 250명)
 신청: 250-3114 / Fax: 250-3112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15차 MR: 12.20(토)~21(일)
 327차: 1.9(금)~11(일)
 328차: 1.23(금)~25(일)
 장소: 한티 / 문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성령봉사회 1박 2일 피정

기간: 12.27(토) 15:00~28(일) 17:00

2박 3일 성령세미나
 기간: 1.9(금) 14:00~11(일) 18:00
 장소: 고령 월막피정의집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2.20(토) 11:00~21(일) 16:00
 회비: 5만 원 / 문의: (010)5490-5345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23(금) 17:30~25(일)
 4박 5일: 12.15(월) 14:00~19(금)
 8박 9일: 1.26(월) 14:00~2.3(화)
 이나시오: 1.23(금) 17:30~25(일)
 장소: (031)946-2337~8

교육 | 모집

2015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0(월)~2015.2.6(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

5차원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36차)

기간: 12.29-31 / 1.26-28 / 2.26-28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주관: 살레시오수녀회
 대상: 초·중·고·대생, 선착순: 30명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참가비: 28만 원

문의: (02)832-2654 / (010)3883-7004

중주성모학교(시각장애) 신입입학생 모집

교육 및 직업재활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저시력 학생 순회 교육 및 맞춤형 방문 교육, 장학혜택,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의: (043)852-1374 / (043)843-1374
 연중 수시 상담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 하는 순례

주옥 같은 일본 성지 순례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눈물나는 순교영성의 중국 성지순례
 장소: 상해, 소주(주문모, 김대건, 최양업)
 문의: 성모승천수도회, (010)4239-1929

제45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모집

초·중·고: 1.6~2.18(3.5.6주 선택)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수업
 대·일반: 1.4~2.15(6주 or 장기가능)
 주관: 마 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2015 제4차 한국살레시오청년대회

기간: 15.2.13(금)~15(일)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대상: 19세~35세 미혼 젊은이
 참가비: 7만 원
 접수: (010)9554-3455

“겨울방학 특집 가족캠프”
일본 성지순례 문화탐방
 나가사키, 운젠, 구마모토, 야소 (4일)
 ※출발일 - 1월 5일, 28일
T. (053)253-3399
 (주)성기여행 (조혈레(유스티노) 흠미회(안젤라))

유방·갑상선 전문 여의사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경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합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언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멀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렌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동,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피나)
 이 범 수(대전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새만민 청정지역 명품 김
광천 어조맛김
 김·건어물·젓갈류 판매
 성전건강식품 마린 및 비자회
 성모회·자모회 등 각종 단체 기금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053-255-3836

광역신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교수수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www.appleuro.com
애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 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행사 | 모임

**성북성당 본당설립 25주년기념
사업기금 마련 잠비천 판매 종료**
본당 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제4회 7080 밥콘서트
일시: 12.13(토) 18:00 / 14(일) 14:00, 17:00
장소: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이홀입장료 1만원
후원: 매일신문, 가톨릭신문, 대구PBC, 교구청년국
문의: (010)4509-7016 / (010)9557-7819

교육 | 모집

제3회 YHY해외봉사활동
기간: 15.2.9(월)~17(화) 8박 9일
장소: 필리핀 마닐라일대 / 경비: 약170만 원
주관: 교구 청소년국, 250-3037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2.13(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민들레국수집이야기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복음의 기쁨 특강
기간: 12.8(월)~12.12(금) 19:3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김정우·송창현·장동훈 신부,
김근수, 이애령 수녀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10)9544-1838

가톨릭근로자화관 12월 영아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2.2(화) 월 3만 원

낮반: 탈출기, 요한(화, 금 10:10)
저녁: 탈출기, 사도행전(화, 목 19:10)
문의: (010)2578-5535, 관덕정은 시편

대구가톨릭사각장애인선교회 봉사자 모집
일시: 목 10:30~12:30
토 10:30~12:30 / 14:30~17:30
문의: 252-1120

천주교 택시기사 선교사 모집
자격: 선교열정있는 착한 교우 / 일터가 교회다
범위: 대구대교구 내 신자 / 선교자료: 무료
신청: 직접 지도신부와 면담
장소: 대구 계산문화관 3층
주관: (사)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성인,어린이),
바이올린, 오카리나, 초코아트, POP,
틀페인팅, 백세건강 / 문의: 476-6211

성모기사회 작은꽃 회원 모집
일시: 매월 셋째 토요일 19:00
장소: 프란치스카눔
대상: 19세 이상 청년 누구나
문의: 최한수, (010)7169-1671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초중고: 1.2~1.30(4주) 선착순
대학: 1차 1.3 / 2차 2.28(8주 이상)
특징: 여성가족부허가프로그램
수녀님인솔, 해외봉사활동
문의: 656-6655 / 593-1273(대학생)

채용 | 안내

중등학교 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원서접수: 12.1(월)~9(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선목: <http://www.dgsunmok.or.kr>
해은: <http://www.daegu-archdiocese.or.kr>
문의: 선목 660-5161 / 해은 660-5164

삼덕유치원 정교사, 방과후전담교사 채용
정교사 2명: 유치원 2급 정교사 소지자
또는 경력자(몬테소리과정 이수자)
방과후전담교사 1명(근무13:00~18:00)
유치원정교사자격소지자(30~40대)
문의: (010)5446-1416

소람상담소 파트타임 조교 채용
근무: 매주 월~금, 14:00~18:00(6개월이상)
자격: 상담관련 공부 경험 있는 미혼 신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서본
제출: kim-sinbu@hanmail.net(12.19까지)
문의: 소람상담소, 250-31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 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해석(오쎬), 김애희(엘리사벳),
이경옥, 정재환(프란치스코), 이유진(세실리아)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대구연세안과
· 아이라식 · 안내렌즈
· 노안수술 · 백내장수술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승원(소시모)
현, 연세대의과교수
(053)626-8881~5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현원보서, 다이아몬드, 손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분도의 한방을 기쁨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주)분도 축복을저하는사람들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53)623-4600, 656-2500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 김명영(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리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